

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요!



나레이션 바울목사님은 안디옥교회를 떠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셨습니다. 그리고 여러 도시를 두루두루 다니다가,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.

실라 와와우..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네요~ 와와와..

나레이션 빌립보에는 귀신들린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, 그 여종이 여러 사람들에게 점을 봐줘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여주던 여자였습니다.

여종 울어름엔 물가를 조심해...!!

주인 아유~ 예쁜 것. 재뻐에 돈이 아주 굴러굴러 들어오는구나~ 아이고~ 좋다 좋아~

나레이션 그런데,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는 매일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.

여종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.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! 하하하하!!!

나레이션 그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, 바울 목사님께서 그 악령을 꾸짖었습니다.

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악한 귀신아, 그 여자에게서 썩 나가거라!

나레이션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곧 여종에게서 나가버렸고, 여종은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.

주인 삼순아! 너 왜 이래? 너 왜 이렇게 정상이야 어?

나레이션 그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돈벌이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,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했습니다.

주인 이자들은 유대인들인데, 우리 도시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

사람들 더러운 이교도의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! 매우 쳐서 추방해야 합니다! 옳소!

나레이션 그래서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, 감옥에 가두었습니다.

치안관 이들을 잘 감시하라고!

간수 예! 알겠습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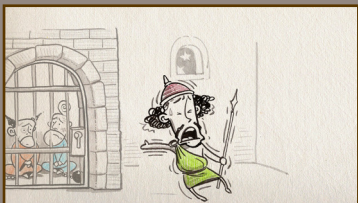
나레이션 밤이 되었는데,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, 다른 죄수들도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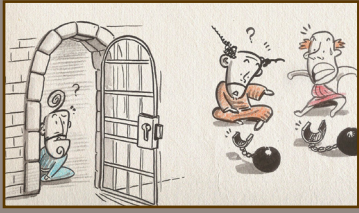
바울과 실라 (함께 찬양한다.)

죄수들 저것들은 뭐여? 지금 두들겨 맞고 들어와서 노래를 불러?... 머리를 맞았나... 정신이 나갔구만? (바울과 실라는 계속 찬양한다.)

나레이션 그 때,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.
(효과음. 쿠후쿠후쿠후!!! 우르르르..)

간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어, 어이쿠!





- 나레이션** 감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문이 모두 열리고,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리고 말았습니다!
- 바울** 엠?
- 죄수들**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여? 잉?
- 간수** 무... 무 문이 다 열렸잖아? 아.. 모두 도, 도망가 버렸어!
- 나레이션** 죄수들을 감시해야 하는 간수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죽으려 하였습니다.
- 간수** 죄수들이 모두 달아났으니, 이제 난 죽어야 해! 흐흑...
- 바울** 멈추시오!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!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.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소!
- 나레이션**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갔습니다.
- 간수** 흑흑흑..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흑흑... 두 분 선생님,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?
- 바울** 이제 당신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. 예수님을 ‘주님’으로 믿으십시오.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.
- 나레이션** 한밤중이었는데도, 간수는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씻겨주었고, 간수의 온 식구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.
- 간수** 선생님! 바울 선생님! 치안관들이 선생님들을 놓아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! 그러니 이제는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!
- 나레이션** 바울목사님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습니다.